

退溪詞 評說**

車 柱 環*

• 目 次 •

I. 序說	IV. 點絳脣
II. 武陵春	V. 安孝思와 退溪의 詩詞
III. 憶秦娥	VI. 結語

I. 序 說

오늘날 같으면 전문적인 시인으로 행세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퇴계(이황, 1501~1570)는 많은 시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의 대부분이 《退溪全書》에 수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하여진다. 퇴계는 주로 고·금 각체의 齊言體로 된 시를 지었고, 도학연구의 索漠함을 그러한 시를 통한 서정으로 부드럽게 하는데 힘썼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렇듯 도학과 은일과 도가적인 상념이 뒷받침되어 있는 風流氣가 뒤섞인 가운데서 우러난 독특한 풍취를 시에 담아냈다. 그래서 퇴계의 시는 그의 생존시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의 卒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愛誦되고 심지어는 학술적으로 연구되기까지 하여 최근에는 상당한 부피를 가진 단행본의 저서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중국학자 王甦教授의 《李退溪的詩學》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영남대의 李章佑교수가 그것을 韓譯하여 금년 봄에 퇴계학연구원에서

* 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4호(1982) 게재논문

간행된 바 있다.

그런데 광의의 시로 간주되는 장단구로 된 詞에 대해서는 퇴계가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그리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退溪全書》에는 그가 지은 詞작품이 단지 3수가 수록되어 전하여질 따름이다. 혹시 또 퇴계가 지은 詞작품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찾아볼 길이 막연한 실정이다. 다만 퇴계의 詞는, 장단구로 되어 있는 때문으로 해서, 주로 제언체의 시에만 숙달했던 종래의 學人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고 거기다 작품의 수요가 단지 3수에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의 역대문집에서 諸家の 詞작품을 수집 정리한 일도 있고 唐樂의 散詞과 중국 詞家들의 작품을 연구하여 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왕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퇴계詞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였다.

《退溪全書》 별집 1(시) <和松岡樂府三篇>이라는 大題下에 武陵春·憶秦娥·點絳脣 세 가지의 詞調에 따른 각 1수 씩의 작품 도합 3수가 수록되어 있다. 松岡은 趙士秀(1502~1558)의 호로, 기절이 있는 관료였고 퇴계와는 빈번하게 시를 唱和贈答한 동년배의 문우였다. 이 3수의 퇴계詞도 兩人的 唱和諸作 중의 일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제목에 나오는 『樂府』는 고체시의 일부에 속하는 악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蘇軾의 詞集을 《東坡樂府》라 命名하고 元好問의 詞集을 《遺山樂府》라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단구로 된 詞을 의미한다. 결국 퇴계는 그의 친구인 송망 조사수가 지은 3조 3편의 詞에 和作한 것이다. 퇴계詞 3수는 제목으로 보면 송강의 詞에 화작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송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다는 의의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희박하고 퇴계의 長輩였던 安孝思의 요청으로 효사가 세운 集勝亭에 걸어놓도록 써준 작품이다. 안효사는 자기의 집승정을 名家가 手書한 시사로 장식하기 위해 애썼던 위인이었고 거기다 퇴계의 詩詞과 書法을 酷愛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안효사는 이미 퇴계의 동년배의 관료

었던 崔演(1503~1549)으로부터 집승정을 노래한 巫山一段雲調에 따른 詞 10수를 얻어가지고 있었고 퇴계로부터는 이 무릉춘 이하의 3수의 詞을 얻어갔다. 안효사는 다시 퇴계에게 書信을 내어 崔演이 지은 巫山一段雲調의 詞 10수에 화작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효사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다만 칠언절구 3수를 지어주는데 그쳤다.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약간 상상력을 발동시켜 추측하여 본다면, 안효사가 먼저 송강한테서 「 무릉춘 등 3수의 자기 집승정을 노래한 詞을 얻은 다음 그것을 퇴계한테로 가지고가서 퇴계의 화작 3수를 얻어갔던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진다. 송강의 原詞이 전하여지지 않아서 대비 검토하여 볼 수 없는 것이 可惜하다.

II. 武陵春

《詞譜》(7)에 따르면 무릉춘은 武林春과 花想容 두 가지의 별칭이 있고 48자 49자 54자의 3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雙調 48자 전후단 각 4구 3평운으로 된 것을 正體로 꼽는다. 퇴계가 지은 무릉춘詞는 바로 48자로 된 正體에 따른 것이다. 원문을 句讀과 단락을 베껴어서 移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武陵春

屋角鳩鳴春雨細，起晚倚窻櫺。滿日烟花一萬重，好是幾番風。陣陣吹紅香不斷，庭院政薰濃。惆悵閒吟望遠空，淡淡日斜紅。

집 모퉁이에서 비둘기 울고 봄비 보드라운데
느지감치 일어나 창문에 기대니
온 눈에 가득하여 아름다운 꽃 일만 겹이고
몇 번째의 바람인가 좋기도 하다

한차례 한차례 싹 붉은 꽃을 불어서 향기 끊기지 않아

뜰안은 지금 막 향훈 질게 풍긴다.
 서글퍼져 한유하게 읊조리며 먼 하늘 바라보니
 담담하게 해는 비스듬이 붉구나

48자체의 무릉춘은 구법이 7575/7575로 되어 있어 결국 칠언구와 오언구가 교착해서 이루어져, 제언체의 詩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별로 짓기 어려운 詞調에 속하지는 않는다. 퇴계같이 詩作에 능숙했던 처지에서 이 무릉춘의 詞調를 가지고 詞 1수를 지어내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무릉춘의 율조중에서 평측을 꼭 지켜야 할 부분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측×평평측측, ×측측평평. ×측평평×측평. ×측측평평.
 ×××××측, ×측측평평. ×측평평측측평. ×측측평평.

퇴계가 이 무릉춘 屋角鳩鳴詞에서 기본율조를 어김없이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이 詞의 전단에서 비둘기 소리를 들으며 느즈감치 일어나서 창문에 기대어 봄비 속의 百花爛漫한 경치를 바람을 느끼며 바라보는 정경을 써내고, 후단에서는 봄의 막바지에 접어든 때 먼 하늘을 바라보고 閒吟하면서 얇은 시름에 잠겨보는 경지를 다루어냈다. 퇴계는 이 詞에서 봄철의 정경을 써내는 데 있어 청각(鳩鳴), 시각(滿目烟花 등), 후각(香不斷 등), 촉각(好是幾番風 등)에 두루 호소하여 실감의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힘써서 그것이 단순한 弄筆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詞의 경우 眞景과 眞情을 다루는 한계는 실제로는 극히 모호한 것이 예사이므로 퇴계가 안효사의 집승정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로 詞을 써낸 것은, 詩詞에 있어서의 정경의 규격화라는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서정면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퇴계의 이 무릉춘詞은 정조가 閒雅하다.

Ⅲ. 憶秦娥

李白의 作으로 전하여지는 다음의 簫聲咽詞이 憶秦娥 율조의 기본으로 간주되어 왔고 또 그 體에 따른 諸家の 작품이 많이 나와 있다.

憶秦娥

李 白

簫聲咽. 秦娥夢斷秦樓月. 秦樓月. 年年柳色, 灞橋傷別. 樂遊原上清秋節.
咸陽古道音塵絕. 音塵絕. 西風殘照, 漢家陵闕.

이 이백의 憶秦娥는 雙調 46자, 전후단 각 5구 3측운, 1첩운으로 되어 있다. 구성상의 특징으로는 전후단 제3구의 끝 3자를 되풀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억진아의 詞調에 따른 詞作은 역대 詞家들에 의해 많이 시도되었는데 특출한 작품의 詞語를 따서 子夜歌 玉交枝 花深深 秦樓月 碧雲深 蓬萊閣 雙荷葉 등 많은 별칭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퇴계는 바로 이 이백의 簫聲咽詞의 율조에 따라 억진아 1수를 지었다. 물론 憶秦娥는 37자 40자 41자 46자 등 장단이 같지 않은 많은 異體가 생겨났고 賀鑄의 曉朦朧詞의 경우와 같이 평운으로 된 體가 나오기도 하였다. 《詞譜》(5)에 10체에 걸친 도해가 나와 있다. 퇴계의 憶秦娥에 句讀과 단락을 베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憶秦娥

逢佳節. 樓臺錦繡春三月. 春三月. 情親遠送, 適秦歸越. 柳條攀盡離腸絕.
征衫雨淚斑斑血. 斑斑血. 夜來天上, 只看銀闕.

좋은 계절 만났으니
누대가 금수를 두른 춘삼월이라
춘삼월이라
다정한 이 멀리 떠나보내니
진나라에 갔다가 월나라로 돌아오는 일이라

버드나무 가지 꺾어 없애 버리며 이별로 애끓으니
 가는 이 옷에 눈물 뿌려 얼룩진 피라
 얼룩진 피라
 밤 새 천상에서
 단지 달 만 보았다

이 46자측운체의 憶秦娥는 구법이 37344/77344로 되어 있어 비교적 錯綜한 편이기는 하나 이백의 憶秦娥詞이 워낙 유명하므로 퇴계도 구법으로 말미암은 곤란은 별로 느끼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月韻을 통용한 운법도, 節 月 絕 闕은 本詞에 쓰인 것을 썼지마는, 越(月韻)과 血(屑韻)을 써서 그대로 따랐다. 다음과 같은 억진아 율조의 평측이 고정된 부분을 가지고 대조하여 보아도 퇴계는 한 군데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측. ×평×측평평측. 평평측. ××××, ××평측.
 ×평×측×평측. ×평×측평평측. 평평측. ×평×측. ××평측.

퇴계의 이 逢佳節詞은 역시 봄철의 정경을 누대를 중심으로 하여 다룬 것으로 말하자면 퇴계가, 집승정에서 춘삼월에 벌어지는 근처의 남녀이별의 광경을 보는 경우를 가상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엮어낸 작품이라고 하겠다. 봄철의 離恨을 다루고 싶었던 것이 퇴계의 심정이었다고 하겠다. 진단말구의 『適秦歸越』은 이 경우 다정한 남녀 사이의 離限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으로 쓴 구절이므로 秦越로나 비켜야 할 相距가 懸隔한 먼 곳으로 가는 사나이를 돌아올 기약이 막연한 처지에서 이별하는 뜻으로 취해야 된다. 秦은 중국의 서북 한 끝에 있고 越은 동남한 끝에 있어, 전연 관계 없는 판 나라같이 여겨질 정도로 동떨어져 있는 두 고장을 의미할 때 진월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秦나라에 갔다가 월나라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읊었다. 후단 제1구의 『柳條攀盡』은 버들가지를 꺾어 떠나가는 사나이를 송별하는 套語다. 攀은 攀折 즉 잡

아당겨 꺾는다는 뜻이다. 『征衫』은 길떠나는 사나이의 옷옷이고 『雨淚』는 사나이를 송별하는 여인이 눈물을 쏟는 것이고 『斑斑血』은 사나이의 옷옷에 묻은 피묻은 자욱이다. 『銀闕』은 다른 뜻이 있어 다소 문제가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달을 두고 한 말로 취해야 될 것 같다. 사나이를 떠나보내고 잠 못 이루며 여인이 밤새 달만 쳐다보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달을 통해 意中人和 心懷의 交通을 바라는 뜻이 부쳐져 있다. 따라서 후단의 생략된 주어는 사나이를 떠나보내는 여인이다. 平明淺露한 詞이기는 하나 퇴계같은 도학자로서는 한껏 용기를 떨쳐서 쓴 것이라 여겨진다.

IV. 點絳脣

點絳脣은 비교적 많이 쓰여진 詞調로 馮延巳의 蔭綠圍紅詞의 율조를 正體로 삼는다.

點絳脣

馮延巳

蔭綠圍紅, 飛瓊家在桃源住. 畫橋當路. 臨水開朱戶.
柳逕春深, 行到關情處. 顰不語. 意憑風絮. 吹向郎邊去.

이것은 雙調 41자, 전단 4구 3측운, 후단 5구 4측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의 蘇軾의 不用悲秋詞은 馮詞의 전단 제2구의 7언구를 제3자에도 압운하여 2구로 나눠 결국 전단을 5구로 만들어서 구수와 운수가 하나씩 더 늘게 되었다.

點絳脣

蘇軾

不用悲秋, 今年身健. 還高宴. 江邨海甸. 總作空花觀.
尙想橫汾, 蘭菊紛相半. 樓船遠. 白雲飛亂. 空有年年鴈.

용운법은 馮蘇 二家가 다 上去通用의 詞韻에 따랐으나, 蘇詞의 경우는 詞韻 제7부 측성의 통용범위가 꽤 넓은 운을 사용하였다. 點絳脣은 이 밖에도 雙調 43자, 전단 4구 3측운, 후단 5구 4측운으로 된 한 體가 있기는 하나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十八香 沙頭雨 南浦月 尋瑤草 萬年春 點櫻桃 등 수종의 별칭이 있다.

퇴계의 點絳脣詞은 다음과 같다.

點秦脣

春暮芳園, 百紅千紫珍禽韻. 路長家遠. 縹緲愁情慢.
綠草滿庭, 弱柳枝枝嫩. 臨觴晚. 酒難消悶. 此意憑誰問.

봄은 꽃다운 등산에 저물어 가는데
가지각색 꽃 피어나고 진기한 새들 노래한다
길은 멀고 집이 먼지라
까마득이 시름겨운 심정 아니 가신다

푸른 풀 뜰에 가득 차 있고
가날픈 버들 가지 마다 여리다
잔 늦도록 들었어도
술로는 서글픔을 지우기가 어려우니
이 의중을 누구에게 물어보겠나

퇴계는 구법은 馮詞의 그것에 따르고, 운은 蘇詞과 같은 제7부의 측성을 사영하였으며, 평측은 또 다음과 같은 正體로 꼽히는 馮詞의 기본 율조를 취했다.

×측평평, ×평×측평평측. ×평×측. ×측평평측.
×측×평, ×측평평측. ××측. ×평×측. ×측평평측.
(蘇詞體의 기본율조는 이와는 좀 다르다.)

퇴계의 이 點絳脣 春暮芳園詞은 객지에서 봄철을 맞는 나그네의 旅愁

를 다룬 것이다. 이러한 羈旅中の 愁悶을 써내는 일은 詩詞에 걸쳐 극히 흔하지만 공식화된 수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퇴계의 경우도 공식화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느껴지기는 하나 장단구의 節奏에 어울리게 語詞을 驅使하여 陳腐한 套에 빠지지 않고 서정의 意趣를 살려내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V. 安孝思와 退溪의 詩詞

《退溪先生續集》(2)에 장문의 시제가 붙은 절구 3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시제는 다음과 같다.

順興安上舍孝思老丈, 所居襄陽郡南蘆浦村, 臺亭勝絶. 今年春, 浼病臥郡館, 上舍爲枉問叙舊, 時年八十四矣. 緣病甚, 不得往謝而來, 媿恨良深. 近又寄書來, 囑和其亭詠中崔良齋樂府十首. 浼素不解作詞曲, 況曾有亭詠近體三首浼呈, 今何更強作耶? 病中聊吟三絶見懷, 以少答上舍辱枉勤索之意云爾.

순흥 안효사 상사 노인장이 사는 양양군 남부 노포촌의 정자는 경치가 극히 아름답다. 금년 봄에 내가 병으로 군의 공관에 누워 있었는데 상사가 찾아와 위문하여 주었으니 그때 그분의 나이가 여든 넷이었다. 병이 심했었기 때문에 가서 사의를 표하지 못하고 와 버려 부끄럽고 한스러움이 이를 데 없다. 근자에 또 편지를 보내와 그의 정자를 읊은 것 중의 최간재의 악부 10수를 화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본래 사곡을 지을 줄 모르고, 거기다 앞서 정자를 읊은 근체 3수를 드린 일이 있으니 지금 무엇하러 다시 억지로 짓겠는가? 병중에 잠시 3수의 절구를 읊어서 심회를 나타내어 적은 것은 가지고 상사의 찾아주심과 근하게 요구하시는 뜻에 답하려는 터이다.

이 시제에서 언급한 안효사에 관해서는, 시제의 내용 이외에는 알아볼 길이 없다. 順興은 그의 본관이고, 上舍는 小科(司馬試)에 합격한

자의 호칭인데 그가 生員 進士 어느 쪽이었는지 또는 두가지를 다 합격하였는지 모르겠다. 안효사가 살았다는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이 있는 지역으로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자연경계가 絶勝한 고장이다. 蘆浦村은 郡南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양양군의 官衙에서 남쪽으로 가는 멀지 않은 곳이다. 안효사의 臺亭은, 그 정자를 읊은 詩詞을 가지고 보자면, 명칭이 집승정이고 설악산을 북쪽으로 바라보고 남대천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졌던 것임을 알게 된다. 퇴계는 42세되던 해(중종 37년, 1542) 팔월 30일에 災傷御史로 강원도로 向發하여 5읍을 검사하고 돌아왔는데 전후 5개월여가 걸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年譜> 1과 <言行錄> 6의 연보부분 當該年條에 어사로 강원도에 파견된 기사가 있고, <陶山送鄭子中赴關東幕>시(外集 1) 自注에 5읍을 검사한 일과 그때 금강산을 가보지 못해 한스러웠던 심정을 토로하였다. 양양은 퇴계가 돌아본 5읍 중의 마지막 고장이었던 것이라 여겨지며, 거기에 당도하였을 때는 해가 바뀌어 43세되던 해(1543) 정월말이나 2월초였으리라 짐작된다. 퇴계는 거기서 병으로 客舍에 누워 있었고 병이 심해져서 그 고장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귀경하였던 것이다. 퇴계 臥病中에 그와 知面이 있었던 안효사가 84세의 老軀를 이끌고 문병을 와 퇴계를 위로해주었고 퇴계는 안효사의 來訪을 펴 기쁘게 여겨 어떤 형식으로든지 답례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승정으로 回訪치 못한 채 퇴계는 그곳을 떠나 버렸다.

안효사는 귀경해 있던 퇴계에게 서찰을 보내 崔良齋의 樂府十首를 화작해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良齋는 崔演(1503~1549, 자는 演之, 강릉인)의 호로 퇴계와는 동년배였으나 퇴계보다는 훨씬 무達했던 인물이고 40대 중반에 형조판서로 冬至使를 다녀오는 등 하다가 곧 早卒하였다. 간재가 판서를 지낼 때 퇴계는 鴻文관의 應敎로 있었으므로 위계의 차이가 懸隔해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최연의 문집으로 良齋先生文集(奎章閣圖書番號 15716) 12권이 전해진다. 거기에는 그가 지은 7조 36수의 詞이 수록되어 있

다. 이 36수 중에 <題集勝亭十詠>이라는 大題下에 巫山一段雲調에 따른 10수의 詞이 10종의 소제로 나뉘어 편입되어 있다. 이 대제를 통해 우리는 안효사의 臺亭이 바로 分屬된 10종의 소제는 다음과 같다.

- | | |
|----------|-----------|
| (1) 郡城曉角 | (2) 山寺暮鍾 |
| (3) 遠林白烟 | (4) 長橋落照 |
| (5) 堂洞春花 | (6) 鶴峯秋月 |
| (7) 蘆浦牧笛 | (8) 箭灘漁火 |
| (9) 北山行雨 | (10) 南川飛雪 |

고려후기의 詩文大家 李齊賢(1287~1367)이 巫山一段雲調로 瀟湘八景과 松都八景을 각각 2편씩 지어낸 이래로 여말선초의 諸家들이 巫山一段雲調로 각지의 경관을 分題 吟詠하였고 그것이 일종의 전통을 이루다시피 되어져 버렸다. 최연도 그러한 전통적인 작품을 이어받아서 그의 <題集勝亭十詠>을 지어내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퇴계는 자신이 본래 詞曲을 지을 줄 모르고 이미 근체 3수를 지어 주었으므로 최연의 악부에 무리하게 화작할 것 없다고하여 결국 巫山一段雲調에 의한 10수의 亭詠은 지어주지 않고 말았다. 다만 퇴계는 그 일을 미안하게 여겨서였던지 집승정의 亭詠중의 칠언절구 10수에 次韻하였다. 《退溪先生文集》 5에 <次韻集勝亭十絶>이라는 대제로 10수의 칠언절구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수의 소제는 최연의 <題集勝亭十詠>의 그것과 같고 다만 제10수의 <南川飛雪>이 <南郊飛雪>로 되어 있어 한 자만이 다를 뿐이다. 集승정의 亭詠 중에 최연의 巫山一段雲調에 따른 十詠 이외에 7절 10수로 된 것이 있어서 퇴계는 그것에 次韻하여 안효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퇴계가 이미 근체 3수를 지어주었다고 한 근체는 律絶을 의미하는 근체시라고 볼 수 없고 바로 앞에서 살펴본 <和松岡樂府三篇>을 말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퇴계는 그 밖에 <次集勝亭韻>(外集 1)이라는 題下에 7절과 7율 각 1수씩을 지은 것이 있으니 장편시제하의 7절 3수를 합한 詩詞을 안효사를 위해 지어

준 셈이 된다. 老上습을 생각하여 퇴계는 예외적으로 3수의 詞까지 지어서 호의를 베풀었고, 15수에 달하는 律絶을 써냈다.

VI. 結 語

지금까지 전해지는 퇴계의 시는 무려 2천수를 돌파한다. 그 가운데 장단구로 된 詞은 3조 3수에 지나지 않으니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그동안 퇴계의 詞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일이 없었다. 그러나 3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퇴계가 남긴 작품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한차례는 고찰하여 볼 의의는 있다. 그래서 이번 학술회의의 기회를 빌어 검토를 가해 보았다.

퇴계는 詞曲을 지을 줄 모른다고 自述하였고, 또 안효사가 부탁한 최연이 지은 巫山一段雲調에 따른 <題集勝亭十詠>을 화작하는 일도 거절하였다. 그러면서도 3조 3수의 詞를 남기기에 이른 데는 약간의 사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로한 안효사가 이미 자기 정자를 위해 지어준 詞 3수를 제시하며 화작을 간청한 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이다. 퇴계가 장편시제하의 제1수에서 『主人黃耆更能詩』라고 한 것으로도 짐작이 가지마는 안효사도 시에 대한 見識이 있고 짓기도 잘했던 것 같아서 자기 정자를 빛낼 亭詠 중에 장단구의 詞이 들어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래서 안효사는 먼저 송강 조사수를 줄라서 무릉춘 점강순 憶秦娥 3조를 써서 지은 詞 3수를 얻어내기에 성공하였고 다시 송강과는 의기투합하여 부단히 각체의 시로 唱和하던 퇴계를 찾아가 송강의 詞 3수에 화작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듯하다. 퇴계도 송강이 지은 이상 화작해 볼 호기심도 생겨서 급기야는 지어내고 말았으리라 여겨진다.

퇴계詞은 의외로 율조에 충실하여 이렇다할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퇴계는 본래 시술에 밝았었으므로, 그에게는 말하자면 생소하게 느껴졌

던 각기 다른 3종의 詞調를 가지고 語詞을 填入하게 되자 극히 조심스럽게 송강의 原詞을 구법 평측 운법 등에 걸쳐 검토하고 나서 그 양식 내지 법도대로 오차 없이 맞춰서 써냈을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송원대의 각종 詞集은 널리 읽혀졌으므로 퇴계는 삼종의 詞調로 지어진 작품들을 詞集에서 찾아내어 그 율조를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데 철저하였던 퇴계였으므로 3수의 詞을 짓는데 있어서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일은 遺漏없이 알아보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시율과 판이한 詞의 율조도 제대로 잘 지켜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3수의 퇴계詞을 통관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詞란 시와는 표현이나 정조에 걸쳐 같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가 3수의 詞에서 다른 계절은 다 봄이다. 그리고 감각에 호소하는 표현을 활용하고, 제언체의 기법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장단구의 節奏을 살려내도록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淸明한 시어와 약간의 구두어에 접근한 詞語를 適宜하게 填入하여서 그의 제언체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는 恣肆한 서정의 수단을 발휘하였다. 퇴계詞 3수는 春愁와 離恨과 旅愁를 봄철에 부쳐서 써낸 好品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근엄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항상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이해되는 퇴계같은 도학자로서는 3수에 불과한 寡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詞을 지어낸 것은 실상 大膽한 시도였다고 하겠다.

퇴계詞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퇴계의 유일한 강원도 행차에 관해 알아보게 된 것은 한가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재상어사의 사명을 띠고 엄격한 공무여행으로 강원도의 5개읍을 다녀왔으므로 몇 수의 시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일정에 쫓겨 수려한 산천경개를 맘껏 欣賞하지 못했다. 그가 강원도의 땅에 가서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와버린 일은 그를 항상 悔恨 속에 몰아 넣었다. 그가 양양에서 설악산과 바다는 볼 수 있었으므로 그 때를 추억하는 詩에서 『雪巖臨瑤海, 銀湖帶玉溪』라고 노래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18수에 달하는 詩詞을 지어준 안

효사의 자랑감이었던 집승정은 병 때문에 가보지 못하고 말았다. 퇴계는 금강산을 유람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고성군수를 자청한 일까지 있었다. 물론 그 일은 실현되지 않고 말았다.

퇴계사 3수는 송강의 詞을 화작한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꽤 알려졌던 것 같아서 그것에 次和한 사람이 몇몇 나오기까지 하였다. 일례를 들면 肅英때의 사람인 李晩松(생년연대 미상)의 《璞巖文集》 詩部에 <次梅軒退陶樂府三篇韻>이라는 題下에 武陵春 億秦娥 點絳脣 3수의 詞이 수록되어 있다.